

124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총괄 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리더십· 책임경영	1. 국민평가			8	7.581	8	7.581
	2. 정부권장정책			5	4.307	5	4.307
경영 효율	1. 업무효율			6	6.000	6	6.000
	2. 자금운용관리 및 성과			1	0.541	1	0.541
	3. 재무예산성과						
	(1) 재무예산성과			1	0.975	1	0.975
	(2) 계량관리업무비			5	3.450	5	3.450
	4. 총인건비 인상률			4	4.000	4	4.000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예술인창작활동신장사업및 생활속의예술활성화사업포함	12	B ⁺			12	9.600
	2. 예술인 창작활동 신장사업			5	5.000	5	5.000
	3.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사업			6	6.000	6	6.000
	4. 지역 문예진흥 지원사업			4	3.873	4	3.873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사업			3	2.099	3	2.099
전체 합계		12		48		60	

I 리더십 · 책임경영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고객만족도 평점×0.9) + (국민체감도 평점×0.1)	목표부여	100	94.767	94.767	8	7.581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 주관 2012년 고객만족도 평점과 2012년 국민체감도 평점을 9:1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고객만족도 평점은 고객만족도 지수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전년 대비 향상도를 4:6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국민체감도 평점은 국민체감도 지수와 국민체감도 평가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4:6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 2012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86.133점으로 전년대비 6.490점 상승하여, 고객만족도 평점 96.906점을 획득하였으며, 2012년 국민체감도 조사결과는 52.813점으로 전년대비 0.310점 상승하여 국민체감도 평점 75.517점을 획득하였다.
- 고객만족도 평점과 국민체감도 평점을 9:1의 비율로 합산하면 평점 94.767점으로 가중치 8.000점 중 7.58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CS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고객만족도를 해당사업부서별 핵심업무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전화친절응대를 전사 공통지표로 선정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차원의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였다.

- 그 결과, 전체 고객만족도(PCSI)를 구성하는 모든 만족지수의 항목이 5점 이상 상승하였으며, 그 중 전반적 만족지수가 85.7점으로 전년 78.9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 역시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 상승하였으며, 특히 금융지원 부분이 86.3점으로 전년 78.8점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
- 2011년 처음 실시된 국민체감도 점수는 2012년 52.813점으로 전년 52.503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민체감도 평점은 75.517점으로 사업홍보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과거 5개년의 경우 2007년 74.1점, 2008년 76.5점, 2009년 75.8점, 2010년 78.0점, 2011년 79.6점으로 소폭의 지속적 상승을 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86.1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전체평균 대비 양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2011년 처음 실시된 국민체감도 조사결과는 2011년 52.503점, 2012년 52.81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86.140	86.140	5	4.307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 권장 사항 및 주요 국가 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집계한 결과 평점 86.140점으로서 가중치 5.000점에 4.307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구분	가중치(A)	부처평가결과(B, %)	득점(A×B)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1.000	100.000	1.000
2.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0.500	100.000	0.500
3. 장애인 의무고용	0.400	70.000	0.280
4. 국가유공자우선채용	0.300	100.000	0.30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0.400	100.000	0.400
- 기술개발제품	0.250	19.685	0.049
- 여성기업제품	0.250	100.000	0.250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0.350	98.000	0.343
- 중증장애인 생산품	0.250	70.000	0.175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0.250	100.000	0.250
- 녹색제품	0.250	63.997	0.160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300	100.000	0.300
7. 온실가스 감축	0.300	42.557	0.128
8. 에너지 절약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 계	4.800	-	4.135

※ 득점조정(가중치 5.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 4.135×5.0/4.8=4.307점

- 전체 13개 항목(평가제외 항목 1개)중 절반이상인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항목도 부처평가결과 98%를 획득하였다.

-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항목에서 70%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기관의 특성상 달성하기 어려운 녹색제품, 기술개발제품,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각각 63.997%, 19.685%, 42.557%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은 2008년 3.300점, 2009년 3.780점, 2010년 3.893점, 2011년 4.611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2012년 4.307점으로 전년대비 0.304점 하락하였다.

II 경영효율

1. 업무효율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1,034,627,991	1,066,056,523	100.000	4.000	4.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율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로 산출되며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2년 노동생산성 실적은 1,066백만원으로 목표치 1,035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여 가중치 4점 만점기준 4.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총수입 부분에서 저소득층 문화복지 강화정책에 따른 복권기금의 확대에 인하여 전년대비 부가가치가 115,258백만원에서 127,107백만원으로 약 10% 증가하였으며, 운전·시설관리 등 단순직종의 계약직을 대폭 아웃소싱함에 따라 평균인원이 전년대비 약 9%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이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평균인원은 2012년 119.2명으로서 2007년 173명, 2008년 159명, 2009년 152명, 2010년 129명, 2011년 130명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
- 부가가치는 2007년 96,429백만원에서 2008년 78,886백만원, 2009년 75,130백만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경륜경정수익금 전입, 공공미술 등 신규사업 개발, 문화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복권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0년 93,846백만원, 2011년 115,258백만원, 2012년 127,107백만원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2) 사업별 업무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참여예술인수}}{\text{지원총액}} \times 100$	목표부여 (편차)	1.655	1.701	100.000	2.000	2.000

나. 평가내용

-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의 참여도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지원총액 대비 참여예술인 수로 산출되며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2년 실적치는 목표치 1.655명 대비 1.701명으로서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2.000점에 2.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술창작기반인 문학, 공연, 시각,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공간 집중지원, 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행사지원 및 신규사업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노력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액 백만원 당 참여예술인 수가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원총액은 2007년 80,516백만원, 2008년 61,938백만원, 2009년 37,886백만원, 2010년 45,711백만원, 2011년 43,393백만원, 2012년 39,949백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 반면, 참여예술인 수는 2007년 96,766명에서 2008년 88,039명, 2009년 63,330명의 감소추세에서 2010년 65,869명, 2011년 65,235명, 2012년 67,953명으로 소폭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2.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1)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금운용평가점수	가중치	득점
기금운용평가결과 활용	목표부여	54.10	1.000	0.541

(2) 평가내용

- 자산운용정책(계획) 및 자산운용관리(집행)의 비계량평가와 단기자산의 연간(상대) 운용수익률과 2년간(절대) 운용수익률, 중장기자산의 연간(상대) 운용수익률과 3년간(절대) 운용수익률 및 샤프지수 등의 자산운용실적(성과)을 평가한 지표로, 평가결과 평점 54.10로서 가중치 1.000점에 득점 0.541점이다.

(3) 항목별 원인분석

가. 자산운용정책(계획)

- 기금의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 체계는 각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고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부서가 자산운용조직과 적절히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위탁 투자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현금성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을 하고 있으나, 상품별로 모두 동일한 위험허용한도를 가지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지침에 의거 운용상품의 선정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중도회수 및 채투자 기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자산배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외부기관을 활용한 전문성 강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 자산운용관리(집행)

- 효율적인 자산운용관리를 위한 자산운용관련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의 안건과 발언내용 등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규모 및 전문성은 어느 정도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체계에 있어 실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 자산운용관리상의 위험측정은 대체로 적절하나, 위험관리 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 포트폴리오 전체 통합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장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대처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부실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부실 또는 만기초과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자산운용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자산별로 시간가중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권고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가 보상체계에 적절하게 반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자산운용실적(성과)

- 단기자산 운용수익률은 시장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중장기자산의 경우 일부상품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 운용기관 및 상품은 위험분산을 위하여 적절하게 잘 분산하여 예치함으로써 집중도가 낮게 나타났다.
- 연중 정부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연기금투자플 내 '신성장동력' 투자상품을 신규예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노력을 기울였다.

(4) 추세분석

- 백분율 환산 기준으로 계량점수는 2008년도 42.2점, 2009년도 31.4점, 2010년도 30.95점으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도는 일부 투자상품의 전액감액 등의 사유로 14.9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과거에 비해 자산운용의 계획 및 수행 과정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2012년에 기금운용 평가결과가 54.1점으로 상승하였다.

3. 재무예산성과

(1) 재무예산성과(사업비 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6.933%	97.546	1.000	0.975

나. 평가내용

- 기관 사업비예산현액의 100% 집행을 목표로 하여 예산계획 대비 집행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2년 사업비예산현액 123,103백만원 중 119,327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집행률 96.93%로 가중치 1점 만점기준 0.97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대부분 사업의 사업비집행률이 99% 이상이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관련 사업비집행률이 85%(사업비예산현액 21,901백만원 중 18,748백만원을 집행)에 그쳐 전체 사업비 집행률이 96.93%로 하락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2년 신규로 적용된 지표로서 추세분석을 위한 2011년 평점 등 과거 추세치는 없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0.019	0.028	69.004	5.000	3.45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의 절감노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2년 실적치는 목표치 0.019 대비 0.028으로 가중치 5점에 대하여 3.4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편람에 따라 사업비 집행액을 매출액으로 평가한다.
- 소외계층 문화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복권기금의 확대, 기부금 유치 노력 등으로 인하여 2012년 매출액 119,327백만원은 전년 110,128백만원 대비 8.4% 증가하였다. 한편 2012년 관리업무비는 기타경비의 증가로 전년 2,906백만원 대비 약 13.2% 증가한 3,290백만원으로,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은 전년 0.026 대비 0.028으로 4.5% 증가, 기준목표 0.019에 미달하여 69.004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 2007년 103,586백만원에서 2009년 72,952백만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0년 91,903백만원, 2011년 110,128백만원, 2012년 119,327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 관리업무비는 2007년 4,742백만원, 2008년 3,724백만원, 2009년 2,74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의 증가로 인한 기관운영비 증가 등으로 2010년 2,803백만원, 2011년 2,906백만원, 2012년 3,29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의 예산지침상의 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목표부여	3.900	2.496	100.000	4.000	4.000

나. 평가내용

- 전기 대비 당기 인건비 인상률의 정부 예산관리 기준(3.900%)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2012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2.496%로서 정부 예산관리기준의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가중치 4.000점에 4.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09년 삭감된 대출초임의 복구금액은 총인건비 인상분 3.9%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 또한, 연간 보수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인건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규입사에 따른 인건비 변동, 승진에 따른 승진급의 발생 등 가능한 변수를 적용하여 월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2008년 3.0% 대비 1.540%, 2009년 1.7% 대비 0.37%, 2010년 1.6% 대비 -1.6%, 2011년 5.550% 대비 3.925%, 2012년 3.900%대비 2.496%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Ⅲ 주요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의 설립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설립목적,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부합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대내외 사업환경 분석과 사업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 제1후보군을 도출하고, 내부 사업진단과 사업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제2후보군을 도출하여 경영전략과 중장기 경영계획에 연계하는 4대 주요사업을 선정한 절차적 체계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1후보군과 제2후보군 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은 10.1로 선정, 예술인력개발원운영과 공공미술사업운영은 10.2, 10.3으로 미선정), 선정하는 방법과 근거를 보완하여 주요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프로세스와 목표수준 설정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도출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서별 평가와 매트릭스 분석, 부서별 교차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노력이 인정되며, 부서별 KPI와 연계하여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고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성과지표별 목표를 본부 수준, 부서 수준, 개인 수준으로 정렬함으로써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 전사적 참여와 공유를 이끌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된다. 다만, 성과지표별 목표 수준이 상당수 전년대비 110%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과 근거를 확보하여 성과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을 정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주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주요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주요사업별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자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사업 추진 시너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 노력이 인정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행을 고도화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다양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이행 및 성과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주요사업을 추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주요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외부 모니터링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주요현안 및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한 기관의 주요사업 집행 적절성 제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의 모니터링 장치나 채널들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주요사업 실행단계 등의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모니터링 간의 중복된 요소를 제거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사업비유치, 시간단축 등으로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부서와 지원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및 프로세스 효율성을 제고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협력기관인 극지연구소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소설 창작 레지던스를 개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한 사례는 우수하게 평가된다.
- 작품발표를 위한 창작기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세계를 무대로 하는 예술가를 지원함으로써 K-Arts를 확산하며,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차세대 예비작가 육성 플랫폼인 '사이버문학광장'을 운영하여 예술창작 지원을 추진한 활동이 인정된다. 또한 문화바우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카드 이용률을 87.2%로 증대한 노력은 매우 우수하게 평가된다. 다만, 사이버문학광장의 이용자 증대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을 2011년 37.6%에서 2012년 58.0%로 증가시키고,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인정된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확산을 '우리가 키워야 할 나무'로 설정하여 '예술나무'로 브랜드화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CI를 개발하여 단계별로 예술나무운동을 전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부활성화를 위한 고객접점별 사업추진 활동 중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활동은 우수하게 평가된다.

(3) 주요사업의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량적 성과와 구분되는 다양한 비계량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예술창작 지원자들의 만족도 증가, 소외지역 및 특수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 증가, 지역 공연예

술축제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관람객 만족도 증가 등의 비계량적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비계량적 성과는 주요사업별로 계량적 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관의 전략목표와 설립목적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주요사업별 비계량 성과를 주요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표나 목표치 등으로 계량적 지표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주요사업의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조직단위의 BSC와 개인단위의 MBO를 연계한 성과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어 주요사업 환류 활동과 성과결과의 공유, 학습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사업별 우수 성과를 발굴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공유, 확산함으로써 환류활동을 실행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2011년 경영평가에서 지적한 ‘기부문화 정착’과 관련된 지적 사항은 2012년 경영실적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예술기부운동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기관이 달성한 다양한 질적 성과가 기부금 증대라는 양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2. 예술인 창작활동 신장사업

(1) 지원예술단체의 활동수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지원프로그램의 작품수+전시(공연)횟수+발간물수 지원총액	목표부여 (편차)	2.870	2.899	100	5.000	5.000

나. 평가내용

-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거둔 창작활동의 증가여부를 토대로, 투입예산 1백만원 당 창출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정도를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추진하는 지역이관 사업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창작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지원금) 1백만원 당 창작활동의 실적치는 2.899건으로서 최고 목표치 2.870건을 초과 달성하여 가중치 5.000점에 5.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창작활동 실적은 창작작품수 99,798건, 전시횟수 2,013건, 공연횟수 12,886건, 발간물(종)수 1,128건 등 총 115,825건으로 전년 100,880건 대비 약 14.81% 증가되었다. ‘선택과 집중’ 등 4대 지원원칙에 따라 우수 예술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하고,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축제(행사) 및 예술공간 거점사업 등 위주 지원 강화 등에 기인한다.

라. 추세분석

-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백만원 당 작품활동 수준이 2008년도 1.105건, 2009년도 1.453건, 2010년도 1.809건, 2011년도 2.325건, 2012년도 2.89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사업

(1)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지원프로그램의 참여관객 수 지원총액	목표부여 (편차)	119,929	120,031	100	6,000	6,000

나. 평가내용

-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투입예산 1백만원 당 참여한 관객 수를 측정하여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추진하는 지역이관 사업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관객 수준을 평가한다.
- 2011년도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백만원 당 참여관객수는 99.934명이었으며, 2012년도는 120.031명으로서 최고 목표치 119.929명을 상회하여 가중치 6,000점에 득점 6,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한 관객수는 유료관람객 1,327,621명, 무료관람객 3,467,510명이며 총 참여관객수는 4,795,131명으로 2011년 4,336,428명 대비 10.58%가 증가하였다. 전체 관람객수의 증가는 파급효과가 큰 선택과 집중형 지원과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수 사업을 추진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향수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라. 추세분석

- 문예진흥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백만원 당 참여관객수는 2008년 59.976명, 2009년 66.822명, 2010년 81.286명, 2011년 99.934명, 2012년 120.031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4. 지역 문예진흥 지원사업

(1) 비수도권 지역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 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비수도권지역 지역문예진흥사업 프로그램 참여관객 수	목표부여	0.924	0.914	96.825	4.000	3.873
지역문예진흥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관객 수						

나. 평가내용

-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예진흥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체 관객수 중 비수도권 지역의 관객수의 증가 실적을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한다.
- 이 지표는 2011년도에 도입된 지표로 16개 광역시·도의 각 지역문화재단(지자체 포함)에 배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참가한 관객비율을 평가한다.
- 2012년도 지역문예진흥사업 전체 참여관객수 중 비수도권지역 참여관객수의 실적치는 0.914(91.4%)으로 최고 목표치 0.924(92.4%) 대비 93.825%를 달성하여 가중치 4.000점에 3.873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시·도 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등 총 4개 사업의 2012년도 참여관객수 합계는 총 8,413,910명이며, 이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723,218명, 비수도권 지역은 7,690,692명으로 비수도권 참여관객의 비율은 91.4%이다. 4개 사업 모두 전년 대비 0.4%p~13.8%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참여관객수가 가장 많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비수도권지역 참여관객수가 81.9%에서 91.6%로 대폭 상승한 것이 전년 대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라. 추세분석

- 지역문화예술지원 강화를 위해 기관은 2009년도부터 사업의 지역이관을 확대하였고, 정확한 성과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각 사업별·지역별 참여관객수 통계를 집계하였다.
- 2010년도 지역문예진흥사업 전체 참여관객수는 5,230,344명(비수도권 참여관객수 3,681,363명, 비수도권 참여관객비율 73.8%), 2011년도 전체 참여관객수 6,333,717명(비수도권 참여관객수 5,317,764명, 비수도권 참여관객비율 84.0%)이었고, 2012년은 전체 참여관객수 8,413,910명(비수도권 참여관객수 7,690,692명, 비수도권 참여관객비율 91.4%)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

(1)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유치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기부금 유치액	목표부여 (편차)	17,603	14,725	69.969	3.000	2.099

나. 평가내용

- 이 지표는 2011년도에 도입된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또는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용도로 기부된 금전 및 물품 등의 기부금 유치실적을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유치실적은 총 14,725백만원으로 목표치 17,603백만원의 69.969%를 달성하여 가중치 3.000점에 2.09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은 총 3,469건으로 조건부 기부금 13,823백만원,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기부금 902백만원을 유치하였다. 지역문화재단 및 전문단체의 지정기부금 사업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여수 엑스포 개최 등에 따라 목표치에는 미달하였으며, 전년 15,048백만원 대비 323백만원(2.1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특성상 현재까지는 조건부기부금이 유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나무 운동 등 활발한 자체 노력에 의해 기부건수 및 법인 재기부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1973년부터 시작된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모금은 2006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 9,066백만원, 2007년 7,971백만원, 2008년 9,948백만원, 2009년 10,236백만원, 2010년 13,435백만원, 2011년 15,048백만원으로 상승하였다가, 대외환경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4,725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